

August Konkel 박사, 잠언, 세션 13

© 2024 August Konkel 및 Ted Hildebrandt

잠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13번째 모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잠언 16:1-22:16입니다.

잠언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련의 잠언 강의에서 우리는 10장부터 시작되는 솔로몬의 모음집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문학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인 10-15장의 모티브에 대해 생각해 보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16장 1절에 나오는 그 모음집의 후반부부터 22장 16절에 나오는 지혜자의 말씀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주제에 관한 좀 더 많은 컬렉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려는 것은 단지 잠언 16장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언 16장 내의 특정 부분들의 응집력과 그들이 특정 주제에 가져오는 관찰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는 방식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잠언 중 일부를 정말 좋아합니다. 첫 번째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나에게 매우 적용 가능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이것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어떻게 말하고 싶은지 고민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싶은지 생각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은, 그러나 그의 응답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얼마나 명확하다고 생각하는지 생각을 정리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듣는 내용은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듣는 내용이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다소 심하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 다른 역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매체와 청취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을 마치고 모든 것이 완전히 명확하다고 생각한 후에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속담의 요지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이 잠언 각각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이 잠언이 말하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이며 여러분은 번역한 단어와 대조하여 그 내용을 숙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구절은 정말 사실입니다. 내가 왜 뭔가를 합니까? 예를 들어 내가 왜 돈을 주나요? 나는 그 질문을 매우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모르는 일부 이유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나는 나 자신을 내가 알아야 할 만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식해야 합니다. 3절. 나는 농부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항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은 그것을 정말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어떻게 농작물을 심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일로 인해 농사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계획을 이루시리라.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그 계획을 통제할 수 없으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소 당혹스럽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일에는 다 목적이 있으니 악인이라도 환난 날에 이를 것이라.

자, 이 구절은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악을 계획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 구절이 말하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 구절이 말하려는 것은 우주에는 도덕적 질서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취하여 그것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목적과 목적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설교자가 3장에서 똑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의 은유 중 일부는 매우 명확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설교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욕망을 우리 마음에 두셨는데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 실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목적에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글쎄요, 교만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특히 자유주의 사회에서 자비심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자비심을 잃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용서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비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물론 누군가가 잘못했거나 자신의 잘못이 발견되면 그냥 내쫓고, 처벌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아니, 자비를 베푸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로 살고 있으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은 평화를 가져오며 때로는 작은 것이 큰 것이 됩니다. 공정함과 정의가 있다면 작은 것도 큰 것이 아닙니다. 정부 아래서의 삶.

물론 정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정부와 약간의 애증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듯이 정부가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자멸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라멕과 같습니다. 가인의 원수를 일곱 번 갚으면 라멕은 일흔 번이라도 갚으리라. 우리에게는 일종의 통제 권위가 필요하지만, 경전에서는 정부가 가장 자주 괴물로 등장합니다.

정부는 모든 인간 범죄자 중 최악이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에 관한 전체 섹션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원하지 않든 왕이 말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정직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간단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실용적인 것들. 좋은 정부에는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좋은 정부는 좋은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적대감을 화해시킵니다. 정부의 은총은 마치 부드러운 비와 같아서 시편 72편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편 72편에서 솔로몬의 비가 인식되는 방식인데, 열왕기서의 시작 부분에 묘사된 방식입니다. 현명하게 사는 것의 미덕. 곧은 길은 안전한 길이다.

교만은 타락하기 전에 온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겸손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명확한 사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실례지만 여기에 일련의 구절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다. 분별력은 생명의 샘입니다. 지혜는 말을 알려줍니다.

잘 선택한 말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그런 모티브를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옳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치명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 구절이 선택되고 여러 번 인용되지만 그래야 합니다. 16장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시다시피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 세션에서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시 돌아올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최악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그렇게 설명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좋아해서 일이 끝났다면 그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우리의 욕구가 결코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일은 폭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속담이 말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욕망이 그를 일하도록 강요한다. 그리고 그의 욕망은 그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그들을 워커홀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자신의 일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그들의 욕구는 결코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속담입니다.

악을 피하는 것, 악한 사람들의 계략.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 여기서 3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백발은 의의 길에서 발견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늙어가는 것에 대해 이러한 경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늙은 범주에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내 나이에 나는 늙었습니다. 내 연령대에서는 zoomer라고 불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무데도 확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 즉 내 또래의 사람들이 아무데도 확대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이 하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확대는 마음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마음 밖으로 확대되면 정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픈 나이는 좋은 것입니다. 흰머리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하는 삶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힘보다 낮습니다.

통제된 분노가 도시를 사로잡습니다. 인내는 힘입니다. 그것은 모든 힘 중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며, 단순히 강압하려는 다른 종류의 힘보다 인내심이 훨씬 낮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솔로몬의 잠언의 매우 자극적인 모임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관한 몇 가지 영역과 생각들입니다.

잠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13번째 모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잠언 16:1-22:16입니다.